

국내 공연예술가의 무대의상 구매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최진희 · 최지은*

전주대학교 전통패션문화전공 전임강사 · 전주대학교 전통패션문화전공 강사*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국내에서 16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며 많은 관객을 동원하였다. 이처럼 공연예술의 성공은 최근 소득의 증가, 여가 시간의 확대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고급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음악회, 뮤지컬, 오페라 등 공연예술분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공연예술에서 시대배경을 알려주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시각적으로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은 배우들이 착용하는 무대의상을 들 수 있다. 무대의상은 공연예술의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 중에서 개인적이며 몸에 가장 밀접하게 접촉되는 것으로 배우 자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최근 국내 공연예술계에서도 이전에 비해 무대의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무대의상의 창작성과 적절함이 극의 성공요인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사용되는 무대 의상은 연주가, 무용수, 배우들이 예술행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고 신경 쓰는 부분이다. 클래식 여성 연주자들은 계절별로 2~3벌의 연주복을 갖고 있으며 값은 보통 몇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다양하다. 「오페라의 유령」에 사용된 의상은 RUG社로부터 고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수입하였다. 이 경우 외국인에 맞게 제작된 의상으로 우리나라 배우에 맞게 다시 수선해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낭비가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오페라 등 무대의상을 대여해 곳은 1~2곳 정도에 불과하며 이것 역시 고가로 특히 지방 무대공연예술가들이 공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공연예술가들에게 공연의 특성은 물론이고 배우 자신의 신체에도 적합한 무대의상 제작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무대의상의 구매

실태와 착용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2년 국내 무대공연예술에서 착용된 무대의상에 대해 문헌 및 설문지를 통해 분석한다.

둘째, 국내 무대공연예술가를 대상으로 무대의상을 외국에서 제작된 경우와 국내에서 제작된 경우로 분류하여 각각 design, size, color, fabric, 제작비용 등 5가지 각 항목별 불만족요인을 설문지법에 의해 분석한다.

연구결과로는 국내 공연에 착용된 무대의상은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공연 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에 대여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작비용이 전체 공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서양인의 사이즈에 맞게 제작된 것으로 국내 배우가 착용하기 위해 의상을 수선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입 의상은 비교적 design, color와 fabric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높았으며, size의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국내에서 한복을 착용하는 공연에서는 주로 직접 제작하였으며, 지방 공연예술단체는 국내업체를 이용하여 제작하기도 하지만 대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작 의상은 design, color, fabric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낮았으며, size,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러므로 제작비용 항목은 design, color, fabric 항목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무대공연예술에서 착용되는 무대의상 실태 분석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연구로 무대공연예술가들이 만족할 수 있는 design, color, fabric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size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연예술가들의 체형 특성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